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역자 서문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역자 서문(이경직 씀), 텍스트판 19–22쪽

🧭 흐름 한눈에

역자는 챗GPT에게 던진 질문으로 글을 연다. 이어 여러 학자의 평가를 모아 워필드가 미국 복음주의 성경론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필드의 이름만 익숙하고 그의 신학은 낯설다. 역자는 그 이유 두 가지를 짚고, 전집과 이 번역서가 어떻게 짜였는지 설명한다. 그다음 워필드가 맞선 시대의 도전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의 치열한 학문적 논쟁이 결국 '생명을 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1·3·5·8·9장을 미리 보여 준다. 끝으로 이 책이 오늘 갖는 의미와 역자가 속한 '개혁주의생명신학'과의 연결을 밝힌다. 이 글은 워필드 자신의 논증이 아니라 **역자가 쓴 안내문**이다.

📜 절별 정리

📜 1. 챗GPT와 학자들: 워필드는 어떤 자리에 있나

역자는 챗GPT에게 미국 복음주의 성경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냐고 묻는다. 챗GPT는 워필드를 꼽는다. 그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린스턴신학교 교수였고, 성경이 원본에서 오류가 없다는 무오성을 강하게 옹호했으며, 현대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역자는 이 대답이 꽤 정확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그것은 기존 학자들의 평가를 학습한 결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이어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한다. 조지 마스덴은 오늘날 복음주의 학자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워필드주의자'와 '카이퍼주의자'로 나뉜다고 말했다. 폴 헬름은 영감·무오 논의에서 워필드의 이름이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신학자”라고 불렀다. 이 말은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을 '플라톤의 각주'라고 한 표현을 빌린 것이다. 역자는 카이퍼와 워필드가 칼뱅주의를 현대에 맞게 풀어내려 한 점은 같았지만, 변증학과 신앙·학문의 관계에서 달랐고, 그 뿌리가 영감관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1. 챗GPT도 워필드를 꼽을 만큼 위상이 확고하다
2. AI의 답은 학자들의 평가를 학습한 결과다
3. 마스덴: 워필드 진영과 카이퍼 진영
4. 밴후저 “공인된 견해”, 재스펠 “영감의 신학자”
5. 역자: 두 진영 차이의 뿌리는 영감관

> —
>
> 이 절에는 성경 인용이 없음(학자 평가 소개)

📜 2. 이름은 익숙한데 신학은 낯선 이유

한국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주의 3대 칼뱅주의자”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쓰인다. 흔히 카이퍼·바빙크·워필드를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역자는 이 이름이 익숙한 것과 달리 워필드의 신학은 낯설다고 말하고, 이유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워필드는 바빙크처럼 자기 신학을 한데 모은 전집을 직접 쓰지 않았다. 당시 프린스턴의 교재는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과 프란시스 튜레틴의 『변증신학 강요』였다. 워필드는 이 책들을 바탕에 두고 그 시대의 도전에 답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변증적이고 실용적이다. 하지만 그만큼 흩어져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려면 독자가 조각들을 직접 모아 분류해 읽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번역이 적다. 사후에 나온 『B. B. 워필드 전집』은 거의 번역되지 않았다. 『칼뱅』(새물결플러스, 2015)이 첫 시도였고 이 책이 두 번째인데, 그 사이에 10년의 공백이 있다.

1. “3대 칼뱅주의자”는 익숙해도 신학은 낯설다
2. 이유 1: 집대성한 조직신학 전집이 없음

4. 그래서 글이 변증적·실용적이지만 흩어져 있음
5. 이유 2: 전집 번역은 이제 겨우 두 권째

> —
> 이 절에는 성경 인용이 없음(역사·출판 정보)

📜 3. 전집 제1권과 이 번역서의 짜임

『워필드 전집』은 모두 열 권이다. 제5권이 2015년 『칼뱅』으로 나왔고, 제1권이 이 『성경론』이다. 전집 제1권의 원래 제목은 Revelation and Inspiration(계시와 영감)이었다. 1948년에 구성을 조금 바꿔 다시 낼 때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성경의 영감과 권위)로 바뀌었다. 역자는 오늘의 독자를 위해 제목을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로 정했다. 구성도 손보았다. 전집 제1권은 부록 둘을 포함해 열두 장인데, 그중 어원 연구 성격이 지나치게 강한 두 장을 뺐다. 대신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를 제9장으로 넣었다. 당시 개신교 자유주의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가장 잘 보여 주는 글이기 때문이다. 짧지만 성경론의 핵심 쟁점을 담은 부록 3·4도 더했다.

1. 전집 10권 중 제1권이 이 책
2. 원제 Revelation and Inspiration
3. 1948년판 제목이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4. 어원학적 두 장은 빼고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추가
5. 부록 3·4도 새로 넣음

> —
> 이 절에는 성경 인용이 없음(편집 정보)

📜 4. 워필드가 맞선 세 물결

기준으로 삼았다. 개신교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에 권위를 두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초자연적 진리를 걷어 내려 했다. 진화론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들을 부정하려 했다고 역자는 정리한다. 워필드는 이 도전들의 밑바닥에 '성경의 권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와 사상을 사용해 성경의 권위를 변호했다. 역자는 이 때문에 이 책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인정한다.

1. 계몽주의: 이성이 진리의 기준
2. 자유주의: 인간 자율, 초자연적 진리 제거
3. 진화론: 창조·타락·구속 교리를 위협(역자 정리)
4. 모든 도전의 뿌리는 성경의 권위 문제
5. 상대의 언어로 변증하다 보니 학문적 문체

> —
>
> 이 절에는 성경 인용이 없음(시대 배경)

📜 5. 논쟁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이다 (1장·3장 미리보기)

역자는 이 책이 학문적이지만 워필드가 여러 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고 강조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워필드가 치밀한 논리로 논쟁에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를 잠재우려는 것이었다. 1장에서 워필드는 계시가 '복'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서 오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대하시며 계시를 주셨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학문 활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3장에서는 영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영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창세기 첫마디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 완전하게 영감된 성경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살아 있는 믿음으로 붙들었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몫이 되었다.

2. 1장: 계시는 복,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3. 계시는 지성을 향하지만 목적은 영생
4. 3장: 영감 =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옴
5.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생명의 책

> **요한복음 17:3**
> 하나님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 계시가 '복'인 이유(서문은 장절을 밝히지 않고 1장의 문장을 인용)
>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창세기 1:1**
> '태초에': 영감된 성경 전체의 시작점(역자가 인용한 3장 문장 속 표현)
>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요한계시록 22:21**
> 마지막 '아멘': 영감된 성경 전체의 끝점(같은 문장 속 표현)
>
>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기인한다.” (역자가 인용한 1장 문장)

📜 6. 지루해 보이는 단어 연구의 속뜻 (5장 미리보기)

5장은 신약성경이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용어를 다룬다. “기록”, “구절”, "책" 같은 말이 성경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지, 전체를 가리키는지를 따진다. 그 용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관사가 붙었는지도 살핀다. 역자도 이 논의가 지루하고

것은 그 구절에 특별한 권위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권위로 받기 때문에 그 구절도 권위를 갖는다. 워필드가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분명하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의 특정 구절만 인용하는 현상을 근거로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1. 5장: 신약의 성경 인용 용어 연구
2. 부분인가 전체인가, 단수·복수, 관사 유무
3. 한 구절의 권위는 성경 전체의 권위에서 나옴
4. 표적은 자유주의의 '부분 영감론'
5.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믿음과 실천의 최종 권위

> —
>
> 서문에는 장절 인용 없음. 5장 본문을 정리할 때 워필드가 다루는 구절을 확인할 것

“모든 부분과 선언에 있어서 믿음과 실천의 최종 권위자” (역자가 인용한 5장 표현)

📜 7. 비평과 합리주의에 대한 응답 (8장·9장 미리보기)

8장은 성경 영감을 공격하는 비평적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워필드는 이 논쟁에 참여하는 이유를 실천에서 찾는다. 영감 교리가 느슨해지면 신앙의 실천도 느슨해진다는 말로 장을 시작한다. 성서비평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룬 뒤,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성경에서 오류를 찾으려던 반대자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다. 9장은 독일에서 시작된 개신교 자유주의가 성경의 권위를 공격한 양상에 집중한다. 워필드는 합리주의와 리츨주의로 이어지는 독일 자유주의를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규정한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주의가 퍼진 곳에서는 기독교가 지속될 수 없다. 교회는 평안을 위해서뿐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악한 누룩'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그는 경고한다.

2. 성경 오류 찾기는 실패, 말씀은 확증됨
3. 9장: 독일 자유주의(합리주의·리츨주의) 비판
4. 워필드는 이를 가장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봄
5. 교회의 생존이 걸린 '누룩'이라 경고

> —
> 서문에는 장절 인용 없음('누룩'은 성경적 비유지만 역자가 구절을 밝히지 않음)

📜 8. 오늘의 의미와 역자의 기대

역자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역자는 워필드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어 역자는 이것이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이 주창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 연결은 **역자의 적용**이지 워필드 자신의 말이 아니다. 역자는 공역자 김상엽 교수를 소개하고, 책을 장종현 총장에게 헌정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로 글을 맺는다. 서문은 2025년 7월 천안에서 쓰였다.

1. 영감·권위는 기독교의 근본 출발점
2.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성경이 유일한 기준
3.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생명이 됨
4. 개혁주의생명신학과의 연결은 역자의 적용
5. 2025년 7월, 장종현 총장에게 헌정

> —
> 이 절에는 성경 인용이 없음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주관하셨다는 고백이다.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입장이다.

부분 영감론
성경의 어떤 부분만 영감되었고 권위가 있다는 주장이다. 워필드가 반박하는 입장이다.

무오성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교리다.

원본(자필본)
사도나 선지자가 처음 기록한 문서다. 워필드가 말하는 무오성은 이 원본에 해당한다.

권위
믿음과 삶에서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될 자격을 말한다.

변증학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변호하는 신학 분야다.

계몽주의
18세기 무렵 유럽에서 일어난 사상 흐름이다.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았다.

개신교 자유주의
19세기 독일에서 부흥한 신학 흐름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맞춰 성경의

리츨주의
독일 신학자 알브레히트 리츨(19세기 후반)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신앙을 도덕적 가치 판단 중심으로 풀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워필드는 미국 복음주의 성경론의 기준점이다. 무오성 논의는 그를 빼고 말하기 어렵다.
- 한국에서는 이름만 익숙하다. 이 번역서는 전집 번역의 두 번째 걸음이다.
- 워필드의 학문적 논쟁은 계몽주의·자유주의 등의 도전 밑바닥에 있는 '성경의 권위' 문제를 겨냥했다.
- 그 목적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자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지키는 데 있었다.
-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일한다. 이것이 역자가 본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편 ·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뜻 · 다섯 책과 한 장의 지도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